

'무주공산' 후보 난립...8명 출사표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10)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전남지역 10곳의 선거구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다. 현직 이장현 국회의원이 서울 영등포를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인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

여야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후보까지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고등검사장 출신 소병철(62) 후보와 재선의 순천시장 출신 무소속 노관규(59) 후보가 대결이 관심사다. 여기에 순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민중당 김선동(52) 후보의 추격전도 주목된다.

민주당의 소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민주당·문재인 대통령 바람'을 타고 당 조직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뒤늦게 선거전에 돌입해 인지도 등이 낮은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소 후보는 고등검사장까지 지냈지만, 변호사 전공에우와 로스쿨 교수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농촌지도사 양성을 위해 농업대학 교수의 길을 걸으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행정부의 개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 후보이긴 하지만, 바닥 민심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특정 정치세력 간 싸움에 순천 정치가 퇴보한 만큼 이제부터 경쟁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후보는 "저의 제1호 법안은 선거구획정법안이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쟁점제 고향 해동면 선거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주요 공약으로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순 10·19 사건특별법 제정 ▲고속철도(KTX) 전라선 고속화·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검사 출신으로 재선의 순천 시장을 지낸 만큼 인지도 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경선을 일찌감치 준비해왔던 만큼 조직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 후보는 자신이 순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도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이름	소병철(62)	천하람(33)	기도서(57)	강병택(49)
학력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 물리학과 졸업
경력	(현)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전)김영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젊은보수 대표	(전)순천시의원(5대) (전)전남도의의원(9대)	(현)별량면 빛산초등학교 대표 (현)정의당 심상정대표 교육특보

정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기독교자유통일당	무소속
이름	김선동(52)	정동호(59)	이정봉(66)	노관규(59)
학력	고려대 물리학과 3학년 제적	조선대 기계공학과 졸업	호남신학대 신학과 졸업	한국방통대 경영학 1학년 제적
경력	(전)18·19대 국회의원	(전)중합건축사무소 기람 이사 (현)혁명당 순천시당협위원장	(현)순천새벽교회 목사 (현)국제 인연 연맹 순천지회장	(전)순천시장 민선4·5기 (전)새천년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

민주 소병철, 민주당 바람 타고 상승세 순천시장 지낸 무소속 노관규 조직 강제 재선 국회의원 출신 민중당 김선동 추격전 순천 선거구 쟁제기 주민 반발 표향 배 관심

임을 강조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그는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일찌감치 당내 경선을 준비했던 저와 지지자, 순천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줬다"면서 "특히 순천시 인구 증가로 인한 2개 선거구가 생겨야 함에도 해동면을 쪼개 광양으로 붙인 행위는 순천시민을 무시한 중앙당의 폭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지원없는 무소속 후보라 선거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많은 지지자들과 순천시민들이 순천의 자존심을 찾아달라고 해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서울~순천 간 KTX 1시간 30분으로 단축 ▲순천대 의대 유치 ▲202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지원과 도시개발 활성화 ▲순천형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추격

전도 관심거리다. 김 후보는 순천에 의대를 유치해 순천을 남해안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표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기반 보장을 위한 전태일법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미래통합당 천하람(33)·민생당 기도서(57)·정의당 강병택(49)·국가혁명배당금당 정동호(59)·기독교자유통일당 이정봉(66) 후보 등도 선거 막판 배당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젊은 보수'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천 후보는 순천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과 순천 선거구 분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순천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을 지낸 민생당 기 후보는 순천 역세권 개발과 봉화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강 후보는 육아휴직 보장과 전교조 합법화, 농어민 기본소득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정 후보는 출산수당·결혼수당,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독교자유통일당 이 후보는 광양민권 통합과 외상센터 설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해 통한 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권일 기자 cki@/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

도착액 5300만달러 2배 증가 정밀화학·에너지·철강산업 투자

전남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 에너지,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서 전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과 신고액 실적이 수도권 외 14개 시도 중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착액은 5300만 달러로 지난해 2200만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난 수치다.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업종은 정밀화학, 에너지, 철강 분야로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해외기업 방문 투자활동 전면 취소와 기업 투자심리 위

축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화 등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4위, 신고액은 5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광현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많지만, 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상으로 증액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해외통상사무소, 도 투자유치전문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 현재 해외기업과 추진 중인 화학, 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유치를 확정짓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미국·EU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광, 농수산, 바이오 등 블루이코노미 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IR)과 대규모 수도권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청년 10농가 중 4농가 친환경농업 종사

소득 높고 판로 안정적

전남도내 40대 미만 청년농부 10농가 중 4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가 지난해 연례대별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태 농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농부인 40대 미만이 총 8081호 중 3036호로 37.6%를 차지했으며, 50대는 같은 연례대 전체 농가의 23% (5471호), 60대 20%(7878호), 70대 16%(7714호), 80대 이상은 14% (3255호)로 젊은 농가일수록 친환경농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청년농이 친환경농업을 선호한 이유로 소득이 일반 농업보다 1.4배에서 1.7배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

제로 농수산물유통공사 '2019년 친환경농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쌀 10kg 평균 소매가격은 유기농이 일반 농업보다 1.7배 높은 4만5988원, 무농약이 1.4배 높은 3만7012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농업을 선호한 또 다른 이유로 학교와 공공급식에 공급돼 판로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과채류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은 서울 등 약 6000여 곳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1만8000t (630억원)이 공급됐다. 또 전남도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도내 모든 학교에 유기농 쌀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임산부의 건강과 아이의 성장 발육 등을 위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도내 8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판세 분석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는 '민주당 바람' vs '민주당 심판' 구도로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은 소병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한 야당 및 무소속 후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 후보와,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 간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소 후보는 여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내 당 조직세를 등에 업고 빠르게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소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하며 동남권의대 유치 등 중앙당과 정책공동협약을 통한 정책 비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 소병철 對 무소속 노관규 2파전...순천 민심 향배 변수

이에 맞서 그동안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왔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민심을 이반한 전략공천·기형적 선거구 획정에 대한 민주당 심판'을 내걸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소 후보와 팽팽한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 후보는 전략공천에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민심 이반을 파고 들면서 '순천 시민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낙하산 후보 vs 순천시민이 키운 후보' '순천 시민 자존심 vs 민주당 패권 세력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양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양 후보 간 치열한 대결 속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선 순천 민심의 향배가 변수로 꼽힌다. 이번 민주당의 전략공천·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반발이 표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순천 유권자들이 또 한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할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순천 민심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81.8%)을 보여줬고, 문재인 당선자의 득표율이 67.8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자기 집권 열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순천은 지난 10년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지역인 만큼 민주당이 시민 정서와 무관하게 전략공천을 감행한 것에 대한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농식품부 '공공급식 지원' 공모 해남군·장성군 선정

농식품부의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해남군과 장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군·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지역 내에서 소량·다품목·연중생산이 가능한 차별화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과 장성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비롯 공급 식재료 지역 생산 품목 실태조사, 수요처 사용 품목 분석, 공급 생산능가 조직화 교육·홍보 등 교육·컨설팅 분야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해 농가 조직화를 통해 기획생산부터 소비까지 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